

癸亥世譜緒言에 즈음하여

國家에는 國史가 있고 氏族에게는 族譜가 있으니 이는 곧 三綱五  
論을 옹계 밝히고져 함이다. 사람이 世上에 태어날 때는 父母로 부터  
이고 其根本은 先祖인 것입니다. 옛 聖賢께서 族譜는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節度있게 德化시키는 것이니 先祖로 부터 昭然하게 序系  
를 밝혀 其後에야 宗親사이에 敦睦의 情誼가 두러워지고 좋은 風俗  
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萬一統緒가 分明치 못하면 和親  
하는 마음이 어둡다고 하겠다. 近來道德이 衰頹하여 修譜나 爲先事  
業을 全然等閑視하고 宗親會崇祖行事하면 舊時代的遺物인樣 外面하  
여 先祖先塋의 守護宣揚에 關心이 적어서 앞서 일하는 者를 비웃는  
者許多함은 實로 寒心한 일이라 하겠다. 다행이 지난 兩年釜山과 大  
田의 全國宗親會에서 各派諸宗께서 全國 石氏世譜 編纂을 滿場一  
致贊同으로 議決하여 今般癸亥譜를 修纂케 됨은 吾宗의 一大慶事라  
하겠다. 前番에 總譜와 大同譜를 엮은바 있으나 다함께 合同치 못하

여 매우 안라잡던 次에 今般 거의 統合된 族譜가 된것은 더욱 多幸  
 한 일이다 我石氏의 始祖諱는 鄰字요 中華人으로서 高麗毅宗朝에  
 건너오셔서 趙位寵亂을 平定하신 功으로 上將軍과 藥城君으로  
 封하니 藥城은 卽忠州의 古號이다 簪組連世하여 六傳에 諱良善  
 洪陽府院君의 配永興崔氏는 懿惠王后의 妹弟이시고 兼하여 일직이  
 懿惠王后昇遐하시고 太祖大王을 乳養하신 功으로 慶昌翁主로 封하  
 였고 또한 覃恩이 子諱天乙에게까지 미취 中郎將兼洪城君을 封하시  
 니 옛 洪州이다 長子인 漢城尹諱壽明계서는 新朝로 贊揚하여 仕  
 路에 昇進하여 洪州로 分貫하셨고 集賢殿提學兼左贊成이신 諱汝  
 明계서는 前朝門下注書로 罔僕의 義로 지켜 太宗大王의 親書召命  
 에드 끝내 不應하여 忠州守義山에서 一生을 마치심에 忠洪二貫의  
 나음이 있으나 其上祖諱鄰字할아버지의 諱를 이어 받았음으로 百  
 餘年前庚寅譜로 부러 合譜함이다 오직 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  
 에 友愛하여 人倫의 道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天子로부러 庶民에 이  
 르기까지 一体이니 其道理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氏族의 族譜를

엮고거하는 者는 마땅히 祖上에서부터 내려오는 姓의 根源에서부터  
 其派系를 밝히고 墳墓의 所在 祖上들의 빛나는 德業을 修錄하여 千  
 秋萬代永遠도록 燦然히 빛나도록 갖추어 놓은 然後에 祖上을 섬기고  
 後孫들의 和睦을 圖謀하는 眞理를 얻게 되는 것이니 그런 까닭에 族  
 譜를 所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임니다 今般 癸亥譜 編纂의 基本은 去  
 年 宗親會議決에 따라 가장 最近譜인 大同譜에 基礎를 두고 漏落된  
 宗親의 收錄과 變更 및 새로운 事實을 記錄하는데 重點을 두었습니  
 다 生覺하건데 이미 己丑 甲子 己酉 庚寅 乙卯 己卯 丁未 癸丑 等  
 여러 차례 修譜하였으나 今般 癸亥譜는 近一八六〇帙 分帙하였으니  
 吾石 修譜史上 最大譜事라 아니할수 없다 이번 修譜에 特記할 것이  
 있으니 其첫째 칼라 寫眞으로 빛나는 祖上들의 壇所 墳墓 齋室 碑  
 閣等의 貴重한 全景을 一目瞭然하게 修錄하였으니 族譜에 登載된者  
 삼가이 參照하여 機會있을 때마다 두루 살피여 崇祖之精神을 더욱  
 宣揚할지이다 둘째 祖上들의 빛나는 顯祖의 業蹟을 記錄한 碑文 記  
 文 上樑文 其他 文章等을 修錄하였으니 全國 各地의 先祖遺蹟과 자

랑스려움을 두루 알수있으리라 믿는다 셋째로 吾石의 寶冊인 修譜  
 時마다 至今까지 祖上追慕를 爲한 全國的 記念事業을 남기지 못함  
 을 痛嘆하여 今番은 修譜 始作때부터 任員全部가 非常한 決心아래  
 萬難을 克服하고 經費를 最少限節約하고 人件費마저 獻納하여 其誠  
 金으로 贊成公(汝明)壇所에 齋室建立基金으로 相當額마련하였고 昌  
 寧 景義祠와 忠州 護聖祠에드 享祀誠金을 若干브렌바 있으니 이것  
 을 起點으로 삼아 全國吾石은 奮然히 일어나 齋室重建에 率先 獻誠  
 할것을 바라며 其結果는 獻誠碑를 마련 永遠도록 記錄하여 남길것  
 이다 이번 世譜編纂에 있어 特히 一楨大夫께서는 全國宗親會長으로  
 數年間 不顧家事 애쓰시고 世譜編纂에드 全國 各宗中을 巡廻修單中  
 서을에서 不意의 病患으로 中途에서 療養할 수 밖에없는 事情에 處  
 한것을 무척 가슴아프게 生覺하면서 快愈를 祈願하는 同時에 큰 功  
 勞에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總務 是伯氏는 平素 自己事業을 全廢  
 하고 專心專力 責任을 完遂하였고 純漢文의 註譯及丁乙민은 東谷宇  
 楨大夫께서 其責任을 不辭하셨고 始終修譜編纂에 晝夜研究專担하신  
 點질이 빛날 것이며 在成 明奉 英培 鎭相諸氏의 犧牲的 努力에 길

이 感謝하는 바이며 全國 各支部長 및 地域別 收單 責任者 여러  
 분의 絶對的인 努力과 協助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리  
 고 慶山 金谷宗中에서 敬梓亭을 譜所 事務室로 提供하시고 物心兩  
 面으로 積極協助하여 주신 點特히 深謝하나이다 다만 民族的 悲劇  
 인 南北의 갈림으로 氏族의 完全修譜가 不可能한 點과 一部 小數의  
 漏譜者가 생긴것을 無限히 안타깝게 生覺하면서 하극 速히 南北이  
 統一되어 完全世譜가 名實共히 이루어지기를 民族的 感情으로 念願  
 하는 바이다 끝으로 今番世譜는 文獻錄과 首卷 壹貳 參卷의 五卷을  
 壹帙로 編纂했는데 此譜로 因하여 先祖를 追慕하는 精神과 親族間  
 敦睦의 情誼가 油然而 솟아나 孝道와 友愛와 和睦의 道義가 宗族間  
 에 넓히 되어나서 吾石 中興의 繁榮이 後世까지 기리 이어나간다면  
 우리 石氏門中의 榮光이 이보다 더 할것이 있겠는가 全國吾石의 無  
 窮한 發展과 安寧을 祈願하면서 삼가나의 所望을 披歷하는 바입니다

西紀一九八三年 癸亥 月 日

石氏世譜編纂委員長 後孫 敬 洙 謹記

## 序文

癸亥

夫譜者氏族之書而其源出於周禮蓋聖王所以使民興行孝悌也尊其祖自近及遠孝之追也敦其族由親逮疎悌之推也其義不亦深且遠矣乎自夫世教既衰人之躬行孝悌者甚鮮然其法猶傳於天下後世殆今舉世通行家家有譜靡不世勤續修亦可謂聖教之遺義也豈不義歟竊惟吾東之石氏出自中國而高麗上將軍諱鄰其上祖也以西京平亂功受封藥城即今之忠州也自是以降崑官崇秩連世燁赫至洪陽府院君諱良善其配崔氏慶昌翁主爲從母於李太祖而兼有鞠養之功而夫婦俱膺異數特蒙封爵復覃恩於其子中郎將諱天乙有賜御製一詩之親筆而贈封洪城其崇報之典極矣其長子曰漢城尹諱壽明仕當朝贊襄治化季子曰門下注書諱汝明爲其出身於勝國拒本朝之召命竟遭譴斥以終昆季之出處不同而易地則皆然矣以是子孫之從貫雖殊其睦族之誼則未嘗有間比如一根之木枝有東西一源之水流有派分也曷足爲嫌哉今世代漸遠子姓甚蕃延散居八域者不可數計而周知則設譜以統合之世勤其修者累度矣迺於壬戌春兩貫之族合議於湖中之大田役二年而功將歇遣其

族敬洙君請余以弁卷之文余以衰病力辭者累而其請不已則遂先叙世系之別作譜之始末且有一言以復之曰程夫子云收宗族厚風俗莫如明譜系譜之義大矣上而載列祖之事行下而明子孫之系出則雖百世之遠瞭然若一室由茲而知源之來思有以孝知流之去思有以慈知親之遠近思有以睦既思之又勉行之子孫相承以傳以受日孜孜於斯則庶幾不負於聖人之設教而可卜門祚之復興也蘇氏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其謂斯矣乎可不勉哉

歲癸亥暮節

碧珍

李鍾烈 謹序

서  
문 (계해)

대개 보첩은 씨족의 글인데 그근원이 주례에서 나와 성왕이 백성으로 하여금 효계를 행행키힘이라 그한아버님을 높히여 가까이 부르려 먼데까지 미침은 효의 추진이요 근 일족을 돈독케하여 친함을 말미암아 소원에 이름은 계의미름이라 그의가 깊으고 또한 멀지않은가 세교가 이미 외함으로 부르려 사함이 몸소 효계로 행하는 이가 심히 적은지라 그러나 그법만은 오히려 친하후세에 전하여 이제 온세상에 흥행되어 집집이 보첩이 있어 대대로 속수치 아니하는 이가 없으니 가히 성교의 유의라 일으리라 어찌의가 아니겠나 간결히 생각컨대 석씨는 중국으로 부르려 나와 고려 상장군 휘린이 그상조이다 서경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예성군에 올라 여러대로 신력하였고 홍양부원군 휘양

선배 최씨 경창옹주계서 태조의 종모가 되시고 겸하여 국양의 공이 있어 부부함께 이주  
 에 응하여 특별히 봉작하심을 입었고 그 아들 중랑장 휘천을 예까지 미쳐 일시의 친필  
 과 홍성군을 봉하니 그 증보의 권이 지극함이라 그 장자이신 한성윤 휘수명은 당조로 친  
 양하였고 문하주서 휘여명은 보조의 소명에 반대함으로 견책을 만나 도라가시니 이로써  
 후손의 종관만은 비록 다르나 무족지되는 다툼이 없다 비컨대 일근의 남기가 끼는 등  
 서가 있고 일원수가 과분만은 있으나 무슨 혐의가 되겠는가 임슬년 봄에 양간의 족이 대  
 전에서 합의하여 일년이 지나역사를 마치고 그 족속 경수군을 비곤의 문을 청하거늘 드  
 디어 분별을 서차하고 또 일언을 더하여 가르대 승부자가 이르대 종족을 거두고 풍속  
 을 드러이함이 보게 발김만 같지 못하다 하니 보의 의가 큼이라 조선의 사행과 자손의  
 계열이 일목요연하니 계를상싱하여 어사예 유일자자하면 그 성인의 설교함을 저바리지  
 안하고 가이무조의 부흥함을 점하리라 소씨가 가르되 내보침을 보는자는 호계의 마음  
 유연히 나리라하니 그이로 이름인즉 가히 힘쓰지 않겠나

세계해 모춘결에 백진 이종열 근서

### 癸亥譜拔文

譜有大譜派譜二例舉一姓而盡合之謂大譜從其所自分而別之謂派譜惟我  
 忠州石氏之譜自英祖己丑始焉而贊成公以下三派合成大譜後百年甲子繼  
 修之二十七年庚寅洪州氏平永兩派入譜忠洪二貫同譜自此爲始二十八年



丙辰忠州氏嶺南兩派合成無例之譜是誠何心哉時則不費寸武而一葉書可  
 以爲通信未知何故也已二十四年己卯雖曰大同而以利欲之私生釁起閭同  
 室之內荷戈相爭孝悌敦睦之心反疎於未修之前二十九年丁未則疆域兩分  
 人民離散收族合修之時然矣乃設總譜於密陽雲圃齋而以支派之面從背違  
 遷延時日消耗門貯乃移於榮州得奎業氏之助力編成七卷冊子比於庚己二  
 譜永興之族其數十倍伊後癸丑續修大譜二卷而遺漏者尚多宗支携異余慨  
 然于此結成大宗宗親會分置十九支部於國內各地以盡收族合之爲主而德  
 薄量狹猶有未同者浩歎何及又以病魔之侵戲半途退是伯敬洙倍前努力  
 越一年夏五月日編成凡五卷總三千三頁紙也是譜也大開未同者悔過之路  
 同者更加親善未同者悔過遷善以祖先一視同仁之心德講敦睦誼於千秋道  
 歲哉譜成日 洪州忠州石氏大同宗親會會長後孫一楨謹記于篇末

계해보 발문

보법이 대보 파보 두 갈래가 있으니 대종을 다 합하여 함을 대보라 이르고 소종을 부르  
 리 분별함은 파보라 일컫느니 오직 우리 석씨보는 영조기축에 찬성공이라 삼파가 합성  
 대보하였고 이후 백년갑자에 거듭났고 이십칠년경인에 홍주씨 평영 양파가 입보하니

충주 홍주 이관동보함이 이때에 처음이니라 이십팔년병진에 충주씨 양파가 전체의 없  
는 보를 이루었으니 이가 진실로 무슨 마음이든고 때인즉 춘보를 회비를 드리지 않더  
라도 일엽서면 가히 흥신을 할터인데 무슨 연고인지 알수 없음인지라 이십사년기 보는  
비록 대동보라 하나 이육의 사심으로서 참을내고 이의를 일으키여 동실에서 상쟁을 하  
니 호계돈부의 마음이 도리어 떨어짐이라 이십구년정미인즉 남북이 갈리고 국민이 이  
산이 되여 수족합수 할때 임으로 이에 총보를 밀양 은포재에 두고 각지파의 결으로는  
슬종하고 뒤로는 반발함으로 천년한 시일에 문제만 소모하고 다시 영주로 옮겨서 구업  
씨의 조력을 받아 칠천책을 편성하니 경인기묘 보첩에 비하면 영흥 종족의 입보한수  
가 거이 십배인지라 후이 계속에 대보 두권을 속수하였으니 빠진자가 상당한수요 종파  
가 마음이 같음을 내가 계연히 여겨서 대동종친회를 결성하여 전국 십구지부를 설치하  
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함께 수보기로 주장하였으니 덕이없고 양이 좁아 오히려 미동  
한자 있으니 크게 칸식함을 어찌 다하겠는가 또한 병마의 침획로 중도에서 물러나니  
시백과 경수 두사람이 배전의 노력을 하여 한해가 지난 하오월에 편성하니 무릇 다섯  
권 책자에 총삼천백페이지다 이보첩에 크게 미동자의 화과의 길을 열었으니 동자는  
다시 친선을 더하고 미동자는 회가 친선하여 조선의 일시동인한 심덕으로서 친추만세  
에 돈부를 힘쓸지어다 보책을 이루는날에 후손 일정은 삼가히 기록함

계해 五월

일

대동종친회 회장

일

정

忠州 洪州

石氏世譜

判尹公諱 壽明 派

二十一世

贊弼一擊寶一千重一

震文

首卷 二

英祖己未生五月二十七日卒墓陵南子

坐

配慶州金氏父贊濟墓

公位雙兆

配慶州金氏父碩恒墓

都家峙癸坐

二十二世

子成玉

英廟丙子生忌二月十七日墓陵南越麓

亥坐

配江陵陳氏父仲昌甲

戌生忌二月二日墓

南星峙丁坐

二十三世

子完宗

正廟丁未生忌三月二十九日墓考位同

原同坐

配羅州羅氏父世重丁

亥生忌十一月二十

八日墓雙兆

二十四世

子昌龍

生父旻完號水閑隱將仕郎陞通政大夫

憲廟戊戌五月二十四日生氣宇英邁意

思超逸常有大節不

拘細故奉先致恪克

盡誠孝嘗有事先陵

多至數年之久而殫

竭心力以至傾產篋

匏屢空少無難色竟

得天佑快仲寬屈晚

卜水閑村自號水閑

隱嚴立家訓克樹鄉

規時人稱關北有監

田遺風庚戌三月十

二日卒墓都家峙良

坐

配淑夫人延日鄭氏父

錫夏癸巳四月三日

生乙巳十一月三日

卒墓公位右同兆

二十五世

子廷律

子尚律

子仲律

子光律

哲廟己未十月二十

六日生辛亥正月二

日卒墓陵南山堂麓

亥坐

二十六世

子斗鎮

子斗鍵

子應瑞

一八六一年五月十

六日生

出系

高宗癸未十二月二

十五日生

配清州韓氏父明舜己

卯十月六日生

二十七世

子東燮

子彪源

甲寅七月十九日生

配恩津宋氏父能憲己

酉五月十八日生

子琥

己未六月十三日生

女安錫俊 順興人

子道源

女李承在 全州人

子斗鈺

女襄東俊 星州人

子敏源

判尹公派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

永興